

AlertPanel

allergen-sIgE test

An innovative method in determining the root cause of allergies in your pet



Type of Test : Canine 72 Specific IgE Test Report
Date of Report : 2021/03/22
Hospital : Nuri Animal Hospital

Card No. : 30226
Pet Owner : Kim,Hyo-jin
Pet Name : Tteongyi
Breed : Cocker Spaniel

알러트패널 검사 결과보고서 - 보호자 설명서

알러트패널 검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검사 결과보고서는 포괄적인 알러지 관리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환자 모두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두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알러지 검사 결과지

- * 분석대상 : 환자의 혈액내에 존재하는 주요 72종 알러젠에 대한 특이 IgE 항체
- * 결과표시 : 컬러 막대그래프로 결과수치가 표시됩니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알러젠 일수록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는 막대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 * 적용방법 : 알러지 증상은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즉, 알러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알러지 유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검출된 알러젠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거나 섭취를 중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알러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1

높은 수치의 결과항목이 너무 많아서 전부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 막대일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위 5-8개의 알러젠부터 최우선적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리합니다.

Meat	Signal Level	Mild	Moderate	Serious	Severe
오리고기	299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299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양고기	4580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4580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소고기	34500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34500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닭고기	1018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1018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칠면조고기	612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612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돼지고기	1938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1938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케이스 2

대부분이 낮은 수치로 나올 경우에는 (파란 막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낮은 수치의 알러젠이라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알러젠에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수치의 알러젠부터 차단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Meat	Signal Level	Mild	Moderate	Serious	Severe
오리고기	449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449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양고기	92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92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소고기	518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518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닭고기	975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975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칠면조고기	153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153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돼지고기	323	[Bar chart showing Signal Level 323 across Mild, Moderate, Serious, and Severe categories]			

Part 2

알러지 검사 자주묻는질문

보호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정보입니다. 알러지의 원인,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집안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알러젠 정보 그리고 주요 알러지 원인체에 대한 설명과 예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알러지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수록 반려동물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친건강적인 관리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Excelsior Bio-System Incorporation

Type of Test : CANINE 72 SPECIFIC IgE TEST REPORT

Name of Hospital :Nuri Animal Hospital

Name of Vet :

Address :

E-mail :

Pet Owner : **Kim,Hyo-jin** Date Received : 2021/3/17

Pet name : **Tteongyi** Date of Report : 2021/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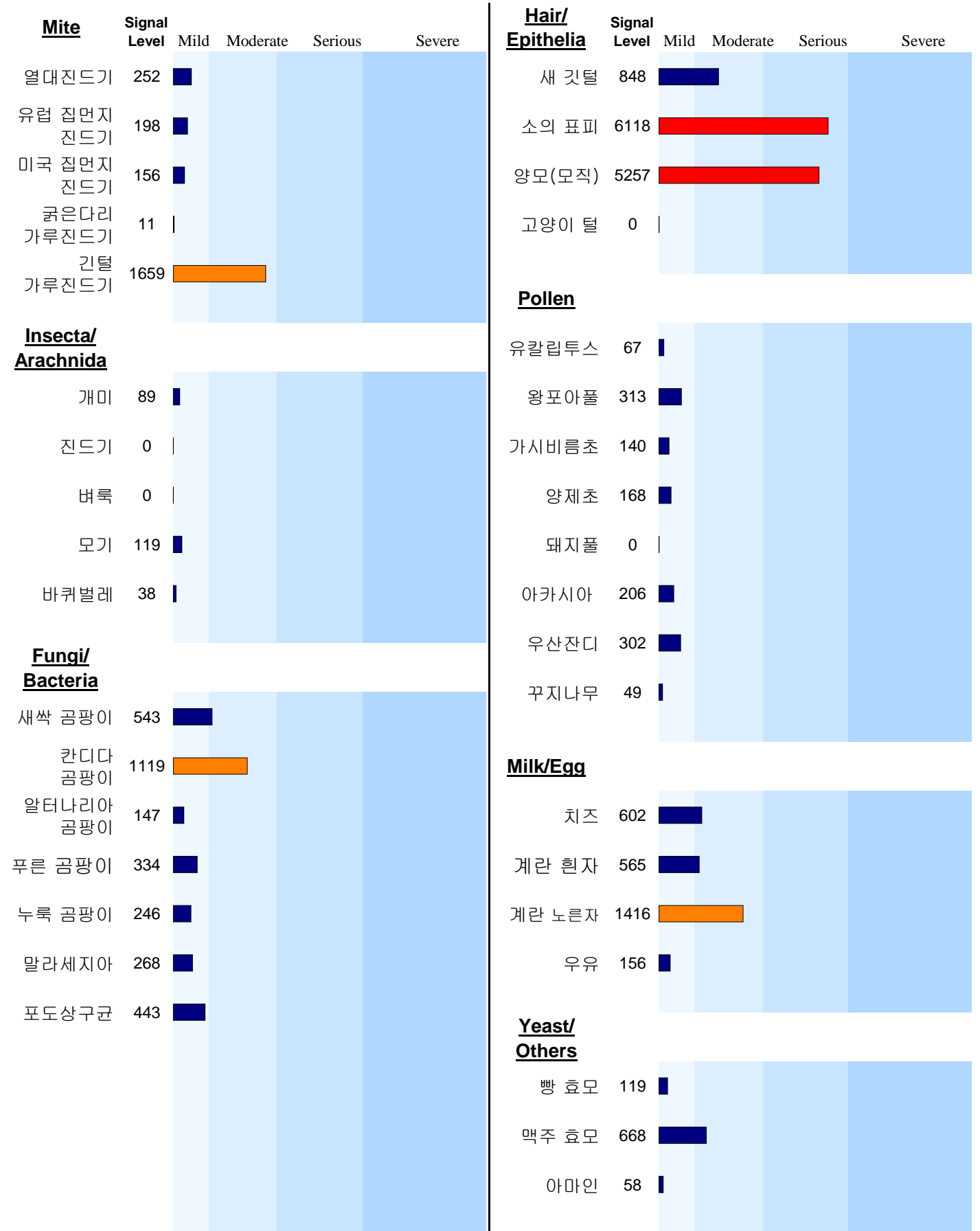
Breed : Cocker Spaniel

Sex : Female

Canine 72 Specific IgE Test Report

Pet Owner :	Kim,Hyo-jin	Pet name :	Tteongyi	Breed :	Cocker Spaniel	Date :	2021/3/22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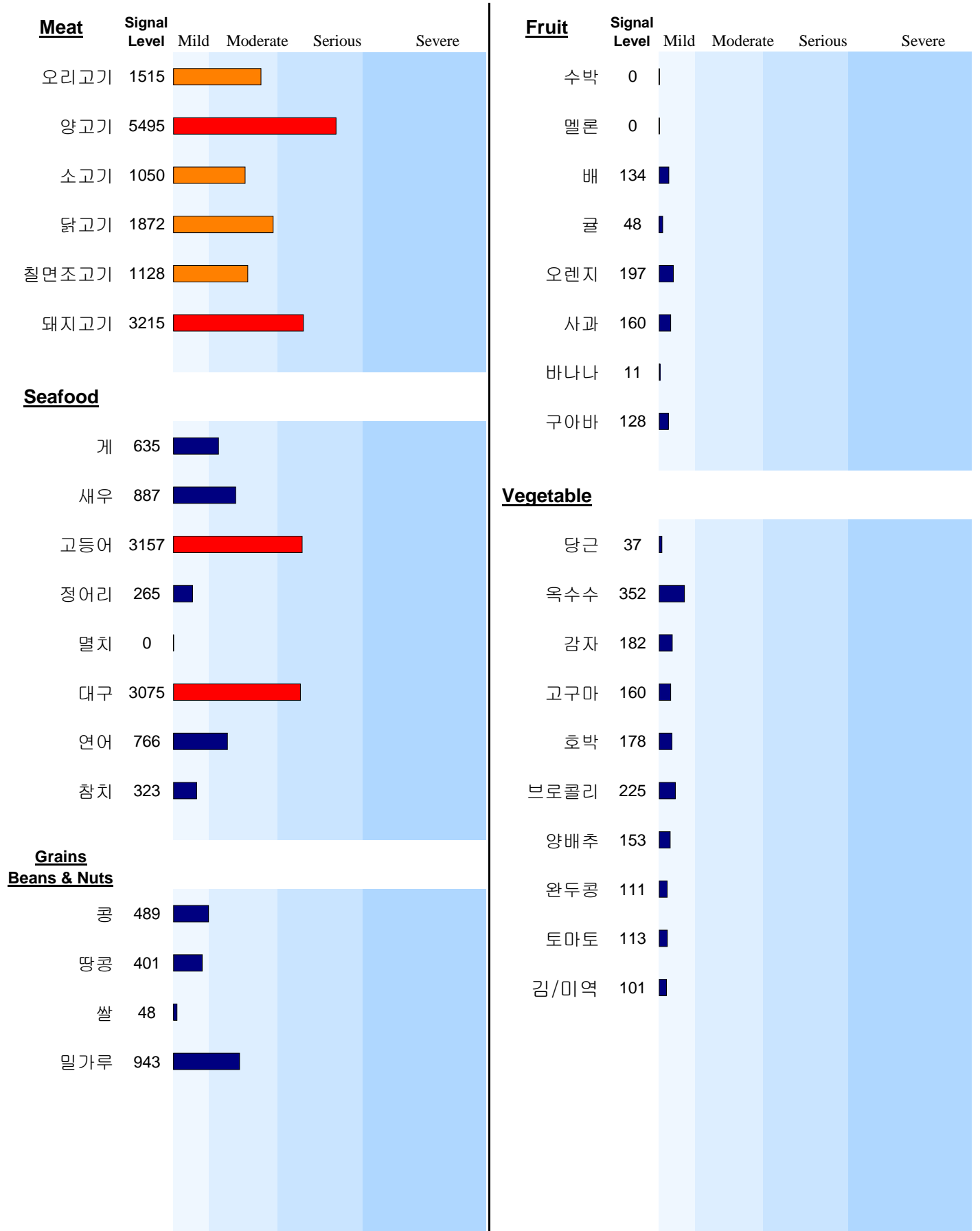
IgE acute allergen reaction



Canine 72 Specific IgE Test Report

Pet Owner :	Kim,Hyo-jin	Pet name :	Tteongyi	Breed :	Cocker Spaniel	Date :	2021/3/22
-------------	-------------	------------	----------	---------	----------------	--------	-----------

IgE acute allergen reaction



Canine 72 Specific IgE Test Report

Pet Owner :	Kim,Hyo-jin	Pet name :	Tteongyi	Breed :	Cocker Spaniel	Date :	2021/3/22
-------------	-------------	------------	----------	---------	----------------	--------	-----------

IgE acute allergen reaction

Moderate:

- (1) 새싹 곰팡이; 새 깃털; 치즈; 계란 흰자; 맥주 효모; 계; 새우; 연어; 밀가루;
- (2) 키티카루진드기; 칸디다 곰팡이; 계란 노른자; 오리고기; 소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Serious:

- (3) 돼지고기; 고등어; 대구;
- (4) 소의 표피; 양모(모직); 양고기;

Severe:

Approved Signator : *Chia Ying Yang*

General Comments:

- Mild (level 0) can be interpreted as normal range. Moderate (level 1-2), Serious (level 3-4) or Severe (level 5-6) should be interpreted as clinically significant.
 - The level of IgE may no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everity of clinical symptoms.
 - Items that have caused an immediately type allergic reaction in the past should still be avoided even if they are not tested positive for IgE values.
1. Items that are tested positive to cause an elevation in IgE level should be avoided.
 2. The test result level of IgE is dependent on the amount of IgE present in each individual, age, breed and size of dogs should be evaluated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3. Food items that did not cause an immediate type allergic reaction within 2 hours of ingestion should still be limited in diets if it is tested positive for causing an elevation in IgE.
-

특정 알러젠 검사 Q&A



(알러트패널, AlertPanel)

Q : 어떤 종류의 알러젠(알러지 원인물질)을 검사하나요 ?

A : 총 72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24가지의 호흡기 알러젠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머리카락, 피부조각 등) 과 43가지 음식물 알러젠(육류, 해산물, 과일, 향료, 유가공품 등) 그리고 5가지의 접촉성 알러젠(해충류 등)을 포함합니다. 알러트패널은 현재 애완동물에게 주로 나타나는 알러지 원인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 : 알러트패널에 포함된 알러젠은 어떤 방식으로 선별되었나요?

A : 72가지 알러젠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기후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선별된 것으로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인물질들을 고르게 선별하여 디자인한 것입니다.

Q : IgE 항체가 수준과 알러지 증상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A : 연구자료에 의하면 IgE 항체가 알러지 증상의 정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즉, IgE 항체가만으로 알러지 발생여부와 증상의 심각성을 판단하기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IgE 항체가 높을 경우 해당 환자는 주변환경이나 각종 섭취물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70% 정도의 알러지 증상소견이 있는 환자에서 높은 IgE 항체가 수준이 관찰되었습니다.

Q : IgE 항체가 수준이 유사할 경우 나타나는 임상증상도 서로 유사한가요? 개체별로 서로 다른점은 무엇 때문인가요?

A : 설명되었듯이, IgE항체와 알러지 증상 정도 및 유발빈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IgE항체와 비만세포 표면의 수용체 (receptor) 그리고 알러젠 세가지가 모두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히스타민이 방출되어 알러지 증상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 IgE항체나 알러젠의 혈중 수치가 높더라도 수용체수가 적거나 수용체 결합이 있는 개체의 경우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소형견에서는 대형견에 비하여 IgE 항체가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Q : IgE항체와 알러지 증상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면 왜 특정 알러젠 검사를 해야 하나요 ?

A : IgE항체는 알러지 증상 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알러지 연관성을 판단하는 정성적인 기준(qualitative measure)으로 활용됩니다. 즉, IgE항체는 환자가 알러지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를 설명해 줍니다. 생체 면역시스템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특정 알러젠 및 이에 대한 IgE항체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알러젠에 대하여 알러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알러젠에 반복되어 노출되면 쇼크 등 심각한 임상증상이 장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어떤 알러젠에 대하여 면역반응을 보이는지 리스트를 파악해 둬으로써 동일 알러젠에 노출 또는 접촉되는 것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러트 패널 검사 결과표를 보시면 알러지 민감도가 등급별로 표시되어 있어 이미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알러지 원인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러젠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Q : 모든 알러지 증상은 IgE항체에 의하여 유발되나요?

A : IgE항체만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특정 알러지 증상의 경우에는 IgG 항체, T세포 면역 이상 또는 면역 시스템의 결함 등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스트레스 등 환경요인도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 알러지 증상 소견이 있는 개의 혈액에는 항상 특정 IgE 항체가 존재하나요?

A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오금, 겨드랑이, 무릎 뒤 등 만곡부위와 얼굴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혈청을 이용한 IgE항체가 검사시 음성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 약물투여가 총량 IgE항체가 검사결과에 영향을 기치나요?

A : 네, 스테로이드제에 의하여 혈중 항체 농도가 영향을 받으므로 검사전 1-2주의 휴약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그러한 휴약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 (면역억제제, 항생제 등) 수의사 선생님께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Q : 시험검사 결과표의 각 등급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 IgE항체의 농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0등급은 IgE항체가 미량일 경우이며, 1등급은 약한양성(파란색 막대기), 2등급은 양성(주황색 막대기), 3등급 이상은 강한 양성(빨간색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2등급 이상은 필히 해당 알러젠 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1등급 원인체 까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한 알러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각 등급은 알러젠에 반응하여 환자의 몸에서 생성된 항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임상증상을 보이더라도 항체가 수치는 개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 양성 반응이 나온 알러젠에 대하여 보호자와 동물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A : 양성이란 해당 알러젠에 대하여 환자가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원장님께서 보호자로 하여금 해당 알러젠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드기나 곰팡이에 알러지가 있을 경우, 보호자는 카펫 사용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침구류를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셔야 합니다. 만약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에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거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가 알러지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알러지란 무엇인가요?

A. 유해한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할 경우 신체 면역기관은 항체를 생산하여 이를 방어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알러지 또는 면역계에 이상이 있는 개나 고양이는 무해한 물질에 대해서도 면역 과민반응을 나타내어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민반응을 “알러지”라고 통칭합니다.

개와 고양이에서 나타나는 알러지는 (개에서 매우 흔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포함하여) 대부분 Type 1 알러지 반응에 속합니다. 즉, 알러젠(알러지 원인체)을 공격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많은 양의 IgE 항체를 생산함으로써 비만세포가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가려움증, 발적, 부종 등과 같은 알러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알러지 완치가 불가능하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알러지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으며 치료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리활동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러지 증상은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나타나지 않으며 유전적 소인, 손상된 피부 보호막, 알러젠 접촉, 스트레스(새집 이사, 계절의 변화)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러지 치료와 관리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의 알러지를 치료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이른바 “각테일 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알러젠 접촉 최소화** : 알러지 검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알러젠 물질의 종류를 밝혀내었다면 이 원인체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 줌으로써 알러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 대중요법** : 증상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가려움증을 없애주거나 상처에 의한 2차 감염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피부건강 증진** : 정기적인 기생충 예방약 처치 외에도 필수 지방산 등의 영양물질을 추가적으로 복용할 경우, 피부 보호막을 강화시켜주고 알러젠 침입을 막아주며 피부 알러지 증상을 줄여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 적당한 운동** : 기초 면역력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알러지 증상에 쏠던 반려동물의 관심을 다른곳에 돌려줌으로써 긁는 행위를 감소시켜 줍니다.
- 면역균형 회복** : **프로바이오틱스**의 꾸준한 복용이 **면역시스템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인 약물치료를 잘 낫지 않는 알러지의 해결에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조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면역요법** : 만성환자의 경우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격으로 알러젠을 투여함으로써 면역내성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소요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사전에 충분한 검진과 수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Q. 우리 아이가 다시 긁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잠시 나아지는 듯 하다가 곧 재발하곤 하는데, 또 주사를 맞으러 가야 하나요?

A.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방법중 매우 효과적인 것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물치치는 비록 원인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지만 증상을 빠르게 없애주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알러지 증상이 급성으로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치치를 통하여 긁고자 하는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으므로 상처로 인한 2차 감염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알러지 증상이 재발할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투여량을 늘려줘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투여가 반복될 경우에는 간기능 손상, 내분비계 이상 그리고 면역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병원을 바꾸기 보다는 담당 수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이의 건강상태를 참고로 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저알러지 사료나 가수분해 사료 등을 먹이면 알러지 증상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먼저, 아이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음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적합한 사료로 교체를 했을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알러지 사료(hypoallergenic food)란 알러지 반응을 좀 덜 일으킬만한 단백질 원료를 사용한 것이며, 가수분해 사료(hydrolyzed food)란 단백질 입자크기를 매우 작게 (3000 달톤 이하) 분해하여 원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수분해 단백질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식이성 알러지 원인파악을 위해 가장 정확하고 기본적인 판단방법은 elimination test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각기 다른 종류의 음식물을 직접 먹여보고 증상을 유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체험적으로 가려내는 것입니다. 수개월 이상의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르는 만큼 중도에 실패하거나 완벽한 결론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늘의 모양도 알지 못한채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알러지 검사를 통한 원인체 파악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아이에게 적합한 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알러젠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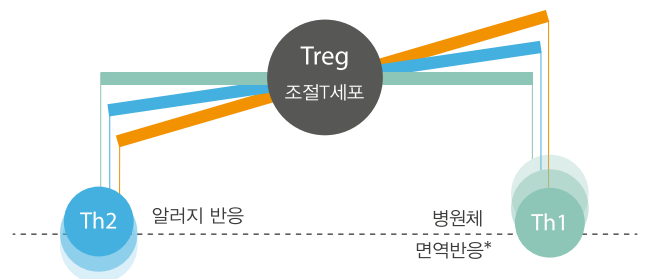
A. 집먼지 진드기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60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Swinnen and Vroom, 2004) 집먼지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했을 때, 실험대상의 48%의 개에서 효과적인 증상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약물치료를 추가했을 때는 증상개선 효과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알러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알러지 증상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Q. 알러지에 대한 반려동물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연구에 의하면 특정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숫자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관 면역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면역기능의 70%가 장관에 분포되어 있음) 프로바이오틱스는 조절T세포(Treg)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제1형 헬퍼 T세포(Th1)와 제2형 헬퍼 T세포 (Th2)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즉, Th2의 과민반응이 억제됨으로써 알러지 증상이 완화되고 알러지에 대한 저항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역균형에 대한 “시소 이론(Seasaw theory)”



*과도한 Th1 면역반응 또한 알러지 이외 다른 종류의 면역매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균형이 유지된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임상증상에 대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이란 무엇인가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개에서 가장 빈발하는 알러지의 한 종류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 열마리중 한마리꼴로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거주견들 대상)

“아토피”란 말의 기원은 “장소를 이탈하다 또는 기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아토포스(atopos)에서 유래합니다. 알러젠을 흡입하거나 섭취한 개에서 피부, 눈, 귀 등 신체의 다른 여러 곳에서 염증 증상이 나타나며 원인을 쉽게 밝히기 어려운 기이한 질병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으며 인체에 무해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알러젠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피부염이나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유발됩니다. (Coca and Cooke, 1923)

유전적 요인 외에도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계절의 변화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령에서 세살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동물이 몸을 긁거나 무는 행위가 늘어나고 이어서 피부가 붉게 변하며 발가락 염증, 농피증, 비듬의 발생 또는 탈모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몸을 긁는 행동이 반복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한가지 증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증상이 연이어 나타나곤 합니다. 또한, 수의사의 정밀 진단과 기타 가능성 있는 원인들에 대한 검진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확진이 어렵습니다. 때때로 장기간에 걸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유전적 요인 외에도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계절의 변화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요 증상

귀

주요증상 : 피부 발적, 악취, 짙은색의 고름 같은 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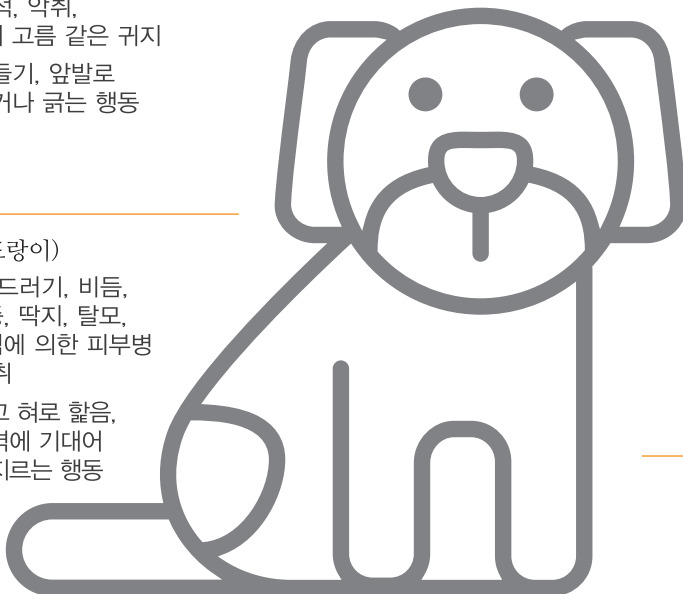
행동습관 : 머리 흔들기, 앞발로 귀를 털거나 긁는 행동

피부

(복부, 사타구니, 겨드랑이)

주요증상 : 발적, 두드러기, 비듬, 가려움증, 딱지, 탈모, 2차 감염에 의한 피부병 또는 악취

행동습관 : 자주 긁고 혀로 핥음, 가구나 벽에 기대어 몸을 문지르는 행동



눈

주요증상 : 결막염, 눈물양 증가

행동습관 : 앞발로 눈 문지르기

얼굴

(입, 입술, 눈 주위)

주요증상 : 발적, 붓고 털이 빠짐

행동습관 : 벽이나 가구에 기대어 긁고 문지르기

발가락

주요증상 : 염증, 발적, 붓고 축축해짐, 자주 핥아서 피부나 피모가 갈색으로 변색됨

행동습관 : 발바닥이나 발톱사이를 핥고 물어뜯는 행동

알러지 주요 원인체별 관리요령

상세설명 및 예방법 안내

집먼지 진드기

Dermatophagoides farinae

/미국 집먼지 진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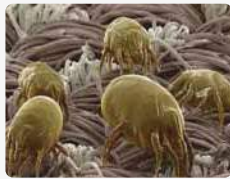
집먼지 진드기중 가장 흔한 종류의 하나이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음. 사료나 창고의 먼지, 각종 모직물, 카펫, 봉제완구, 소파 등의 먼지가 쌓인 곳에 주로 서식함. 가정내에 존재하는 각종 유기물 쓰레기 조각이나 먼지 입자 등을 먹고 살며 이들 사체와 분비물 등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알러젠 역할을 함. 반복적인 형태의 기침과 천식의 80% 이상이 집먼지 진드기 알러지와 관련되어 있음.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유럽 집먼지 진드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음.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 조각 등을 먹고 살며, 카펫, 소파, 침구류 등 따뜻하고(25°C) 습기가 충분한 환경에 서식함.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알러젠중 하나이며 집먼지 진드기의 사체 조각이나 분비물이 강력한 알러지 반응을 유도함. 반복적인 형태의 기침과 천식의 80% 이상이 집먼지 진드기 알러지와 관련되어 있음.



Blomia tropicalis

/열대 진드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진드기 종류중 하나이며 몸통에 깃털 같은 털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임. 창고 등 물건이 쌓여있는 곳에 주로 존재하며 열과 빛을 피해서 서식함.



저장 진드기

Tyrophagus putrescentiae

/긴털가루 진드기

반려동물용 사료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먼지 진드기의 한 종류임. 긴털가루 진드기는 사람에게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체 이기도 함. 크기가 매우 작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가 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농업과 인류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함.



Acarus siro

/굵은다리가루 진드기

농업 유해 해충이며 환경 알러젠임. 치즈, 건초, 콩 등과 같은 곡물의 가루 등을 주식으로 하며 저장 창고에 상재하는 주요 해충류 중 하나임. 곡물의 표면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씨앗의 안쪽에 파고들어 배아를 상하게 하는 등 곡물생산에 큰 영향을 끼침. 또한, 반려동물용 사료에 의해 유발되는 알러지의 주요 원인체 역할을 하기도 함.



예방 및 관리 방법

예방 및 관리 방법

- 반려동물의 위생상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애견 하우스나 방석, 담요, 봉제완구, 소파 커버 등을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말려줍니다. 햇빛의 직사광선에 말려주면 자연소독이 될 수 있습니다.
- 소파와 거실 바닥 등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며 실내 공기청정기 사용도 바람직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반려동물을 청소하는 곳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 침구류는 자주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줍니다.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제습기 등을 이용하여 실내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진드기 번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줍니다.
- 알러지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카펫이나 돛자리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드기 구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실내 집먼지 진드기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조일자, 유효기간, 포장상태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료는 즉시 버리는 것이 좋으며 잠시라도 바깥에 보관하여 새로 구입한 신선한 사료와 함께 두지 않도록 합니다.
- 필요이상의 사료를 쌓아놓지 않도록 합니다. 빈 사료 봉투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일단 개봉한 사료는 한달이내에 모두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원상태가 훼손되었거나 재포장된 사료는 구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일단 개봉한 이후에는 밀폐용기 등에 담아 놓는 것이 좋으며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하도록 합니다.
- 반려동물용 밥그릇은 가능한 자주 따뜻한 물로(55°C) 세척해 주도록 하며 깨끗한 수건으로 잘 닦아줍니다.
- 밥그릇에 사료를 부을 때에는 사료 포장지 표면이나 밑바닥에 있는 먼지가 함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먼지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진드기나 곰팡이와 같은 해충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주요 원인체별 관리요령

상세설명 및 예방법 안내

해충류

바퀴벌레

약 29°C 정도의 따뜻한 기온의 환경을 좋아하며 도시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기물은 물론이고 무기물까지 대부분의 것들을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실내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해충 구제활동을 하여 번식을 차단합니다.
- 직접 때려잡거나 발로 밟는 행위는 체액과 함께 바퀴벌레의 몸이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나 병원체 등이 퍼질 수 있으므로 삼가하도록 합니다.

모기

실내에 있는 모기는 차갑고 습기찬 곳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며 야외에 있는 모기는 땅에 가까운 풀밭이나 초목 그리고 배수로와 같은 어두운 곳에 주로 서식합니다. 알이나 유충은 물웅덩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환경위생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물이 고이는 곳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절기에는 창문이나 현관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모기들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 모기약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모기약에 함유된 살충제 성분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도록 합니다.

개미

한번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으며 전염성 질병이나 건강에 유해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집안내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치워주도록 하는 것이 개미의 번식예방에 좋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은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 반려동물용 하우스나 침구류 그리고 식기는 자주 세척해 줍니다. 음식물 조각은 개미를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벼룩

마루바닥의 틈새나 카페트 또는 집먼지 등에 주로 서식합니다. 벼룩은 개와 고양이에게 흔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흡혈 해충입니다.



진드기

일년 내내 번식이 가능하며, 야외활동 후 반려동물의 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환경위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이러한 해충의 전파 도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반려동물의 청결상태를 관찰하고 유지해 주도록 합니다.
- 실내나 정원에 있는 화분, 나무 등을 주기적으로 닦고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덩불속을 뛰어다니며 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애견 하우스나 침구류, 장난감 등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낡은 것은 새것으로 교환해 줍니다.
- 정기적인 미용이나 목욕 외에도 외부기생충 구제제의 사용을 통한 예방도 가능합니다. (바르는 약, 스프레이, 샴푸, 경구 복용약 등) 이러한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사전에 수의사의 상담을 받으도록 합니다.



알러지 주요 원인체별 관리요령

상세설명 및 예방법 안내

곰팡이류

푸른 곰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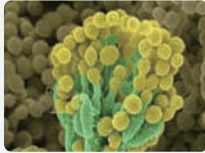
(벽장, 음식물, 야채, 과일, 가구류, 가죽제품, 어둡고 습한 구석진 곳, 벽면 등)

학명 / *Penicillium notatum*



◆ 생태학적 분포

크기가 작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곰팡이로써 각종 음식물, 야채, 과일, 가구류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야외에서는 숲속의 풀숲이나 농작물 경작지의 흙속에서 자라며, 실내에서는 주로 과자나 빵류 그리고 가죽제품의 표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과일이나 먹고 남은 음식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집안의 가구나 가죽제품은 주기적으로 닦아줍니다.

누룩 곰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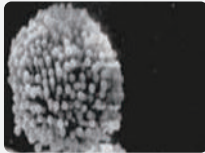
(정원, 오리털 베개 등)

학명 / *Aspergillus fumigatus*



◆ 생태학적 분포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게 분포하며 흙이나 동물과 식물의 유기물 쓰레기, 분변 등에서 자랍니다. 조류 동물의 몸이나 깃털, 소화기관에도 서식하기 쉽고 낙엽더미나 식물의 조각, 야채, 고구마 그리고 베개와 같은 새의 깃털이 들어간 침구류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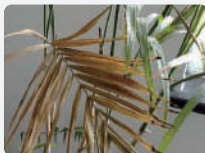
예방 및 관리 방법

- 가능한 새의 깃털로 만들어진 제품의 사용을 피합니다. 화분이나 화초의 나뭇잎은 정기적으로 손질을 하고 닦아주며 시든 잎은 즉시 제거해 줍니다. 야채류나 과일 등은 세척 후 가능한 냉장고에 보관하며 상온에서 부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새싹 곰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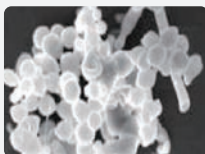
(공기 중, 정원 등)

학명 / *Cladosporium herbarum*



◆ 생태학적 분포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주요 곰팡이중에 한 종류이며 공기중에 떠다니는 새싹 곰팡이 포자는 천식이나 알러지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식물이나 죽은 나무에서 주로 발견되며 18 - 28°C 사이의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시들어 버린 화초나 나뭇잎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거해 줍니다. 실내에서 기르고 있는 화분의 솟자를 줄이거나 밖으로 옮겨줍니다.

알터나리아 곰팡이

(음식물, 창틀, 정원 등)

학명 / *Alternaria alternata*



◆ 생태학적 분포

야외의 공기중에 폭넓게 분포하며 실내의 화분 등에서 발견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음식물, 옥수수 사일리지 사료, 죽은 나무, 새 둥지, 토마토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집안의 창문 틈새 등에 서식하다가 공기가 따뜻해지면 증식하여 검게 나타나곤 합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창문 틈새나 습기가 높은 구석진 곳을 자주 청소해 줍니다. 과일이나 야채 쓰레기, 화분이나 정원의 시든잎과 가지는 수시로 치워 줍니다.

칸디다 곰팡이

학명 / *Candida albicans*



◆ 생태학적 분포

자연계에 폭넓게 분포하며 대부분의 동물(개, 고양이, 가축, 설치류, 새)에 쉽게 감염됩니다. 소화기관의 염증이나 코, 입 등 점막조직에 손상이 생길 경우 칸디다 곰팡이의 감염확률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면역능력을 저하시키고 영양실조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 반려동물의 기초 면역력을 길러줘야 하며 가능한 한 스테로이드 약물의 복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일단 칸디다 곰팡이에 감염된 동물은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인 치료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 방안

- 야외활동 후에는 반려동물의 다리와 네발을 깨끗이 닦고 말려준 후에 실내에 들어 오도록 합니다.
- 애견리유와 담요, 방석, 하우스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잘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목욕을 한 이후에는 드라이기로 털에 묻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며 정기적으로 샤워꼭지를 교체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 창문틀, 스크린도어(모기장) 등을 정기적으로 닦아주고 화장실이나 부엌의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미리 예방합니다.
- 실내에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를 쌓아놓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환기시켜 줍니다. 침구류는 가능한 자주 햇볕에 말리고 카페트나 직물류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입자의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실내외에 시든 나뭇잎이나 각종 쓰레기 더미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치워 줍니다.
- 실내 습도를 줄여줍니다. 화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습도가 증가하고 곰팡이 번식확률도 증가합니다. 장마철 등 특정시기에는 에어컨이나 제습기 등을 이용하여 실내 습도를 40% 이하로 유지하면 곰팡이 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햇볕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에 옷이나 가구 등을 쬐도록 하면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에 의해 미생물이 사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옷을 삶거나 스팀 다리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주요 실내 알러젠 분포도

발생장소 및 주요 원인체

반려동물 건강관리
그 시작은 바로 -

알러젠(알러지 원인체)의
적절한 관리와 깨끗한
환경유지입니다!



창문, 창틀

알러젠 : 알터나리아 곰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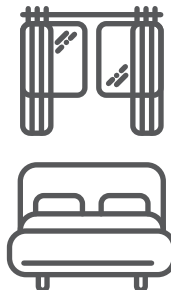
욕실

대상 : 욕조, 타일 틈새, 샤워실

알러젠 : 알터나리아 곰팡이

샤워커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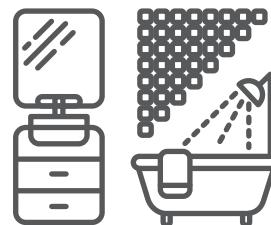
알러젠 : 푸른 곰팡이



침실

대상 : 베개, 담요, 소파, 커튼

알러젠 : 미국 집먼지진드기,
유럽 집먼지진드기, 누룩 곰팡이



정원

대상 :

흙, 식물 사체

알러젠 : 꽃가루,
누룩 곰팡이, 새싹 곰팡이,
알터나리아 곰팡이



가정용품

대상 : 가족 신발, 가족 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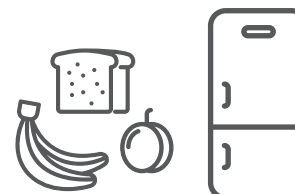
알러젠 : 푸른 곰팡이



음식물

대상 : 과일, 빵, 과자 등

알러젠 : 푸른 곰팡이,
알터나리아 곰팡이



기타 주의해야 할 대상



반려동물용 사료와 식기

알러젠 : 열대진드기, 긴털가루 진드기, 굵은다리가루 진드기

담요, 카페트, 스웨터

알러젠 : 털 조각(양모/모직)